

좋은 책과 만나는 '행운'을 경험하라

대학 진학을 앞둔 청소년들의 책읽기

柳宗鎬

이화여대 영문과 교수 · 문학평론가

세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 때문에 더욱 잘 알려져 있는 케사르가 젊은날 지방 재무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순회재판을 하며 여러곳을 돌아다녔다. 가테스란 곳에 당도했을 때 헤라클레스 신전 속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을 보고 장탄식을 했다고 한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했던 나이가 되었는데도 나는 무엇 하나 세상이 기여할 만한 일을 한 바 없구나."

그는 서울로 되돌아가 될수록 빨리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 재무관의 직위를 사임하였다. 그런데 그날밤 해괴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어머니를 욕보인 것이었다. 몹시 당황해 하였는데 꿈점쟁이들이 세계 지배를 예고하는 꿈이라고 해몽을 하며 그를 격려하였다. 바닥에 때려눕힌 어머니는 다름아닌 모든 것의 어머니인 대지를 뜻한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세토니우스란 로마 황제 비서관이 쓴 「황제전」에 나오는 얘기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속담의 묘미를 실감케 한다는 소회를 적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이 아니다. 케사르와 같은 영웅(이 말은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냥 세상 통념에 따라 쓰기로 한다)도 앞서 세상을 산 알렉산더 대왕 같은 선례를 본으로 삼고 자기 삶을 설계했다는 점을 음미하기 위해서 인용해 본 것이다.

모방 통한 자기발견의 성취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타인의 삶을 모방한다. 그럼 연습을 시작할 때 옛날 대가의 작품을 모작하도록 하는 것은 미술지망자에게 과하는 첫훈련의 하나였다. 모방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형성과 자기발견을 성취하는 것이다. 예술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삶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어느 모로든 삶도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삶도 평생 걸려서 완성하는 하나의 작품이다.

따라서 진지하게 앞날을 설계하고 구상하려는 젊은이들은 본이 될 만한 선례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위의 스승이나 선배나 친척 어른과 같은 구체적인 모형도 중요하다. 그러나 자기가 지향하는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선행 모형을 선택해서 참조하고 영감받고 격려받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분야에서 걸출한 인물들의 전기 읽기를 우선 권고하고 싶다. 평등의 원리를 강조하는 근대 민주주의의 기풍은 은

연중 인간적인 걸출함과 탁월함에 대한 숭상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평등의 원리가 인간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재능의 차이를 간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뛰어난 것과 뛰어난 것에 대한 경의는 결코 폄훼될 수 없는 것이다. 뛰어난 것에 대한 감탄, 가령 뛰어난 연주자나 기능 보유자나 체육인에 대한 감탄은 그대로 인간과 세계에 보내는 감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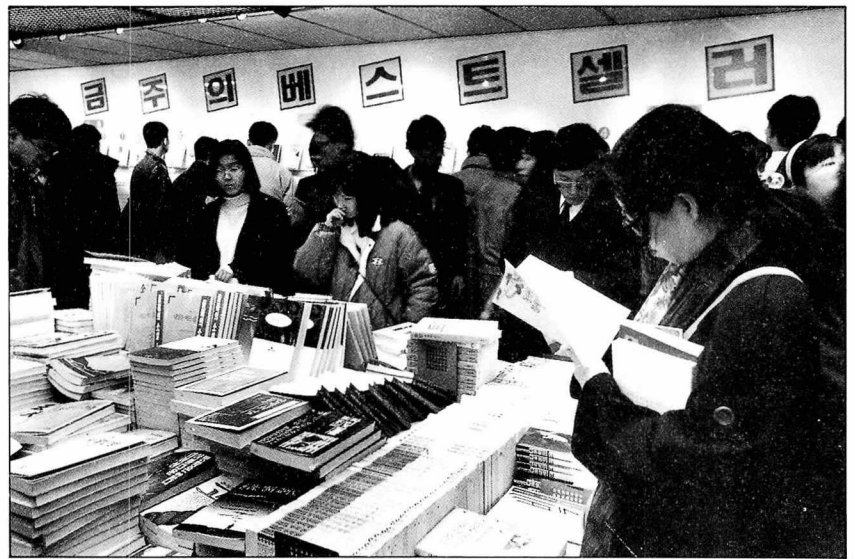
뛰어난 성취를 보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딱 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다. 또 다복한 성공자가 있는가 하면 불우했던 인물들도 많다. 그러나 그 자신이 뛰어난 인물이었던 르네상스적 인간 괴테가 천재란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갈파했듯이 자기 일에 대한 정열적인 헌신이야말로 이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생을 통해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표현하고 과감한 자기개신을 실천했던 톨스토이, 참다운 겸허함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보여준 아인슈타인, 흐릿한 정신 속에서 아프지 않은 것보다 아픔 속에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겠다는 20여차례의 수술을 동반한 암과의 투쟁 속에서 진통제 맞기를 거절하며 책을 쓴 프로이트, 무저항주의의 실천으로 독립성취를 위해 시종한 간디, 이 모든 위인들의 삶은 우리들을 끝내 감동시키고 만다. 이러한 걸출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미 정평있는 저자에 의한 전기나 나와 있다. 선호나 분야에 따라서 적당한 인물을 선택해서 본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너무 아득하게 먼 사람들이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세 앞에서 감동적인 시간을 가져 보자는 것이다.

형성기에 좋은 책을 만나본다는 것은 훌륭한 부모, 스승, 친구를 만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행운이다. 그리고 사람의 일생처럼 흥미진진한 '극'이 어디 또 있을 것인가? 하다못해 범죄인이나 탈선자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反面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기 방향 다룬 작품도 유의

젊은 시절은 흔히 구세대 사람들에게 좋은 시절이라는 선망에 찬 정의를 받게 마련이다. 그러나 가장 고뇌에 찬 방향의 시절이기도 하다. 이른바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때 다른 젊은이들이 어떻게 괴로워하고 방향하였으며, 그러나 끝내는 자



진지하게 앞날을 구상하려는 젊은이들에게는 전기읽기와 형성소설의 체질이 필요하다.

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를 알아본다는 것은 재미있고도 유의한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서양쪽의 이른바 성장소설 혹은 형성소설이다. 형성소설을 좁게 해석하면 독일 흐름의 소설로 한정된다. 괴테에서 토마스 만에 이르는 작가들의 몇몇 작품이 흔히 거론된다. 그러나 조금 느슨하게 해석하면 청년기의 방황과 자기발견을 다룬 작품을 모두 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모험소설의 내면화가 곧 형성소설이다"라는 토마스 만의 정의를 받아들일 때 내면의 모험과 모색을 다룬 소설이 모두 해당될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토마스 만의 「마의 산」, 헤세의 「피터 카멘친트」 지드의 「지상의 양식」 「좁은 문」, 모옴의 「인간의 굴레」, 로렌스의 「아들과 연인들」이 이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에 토스토이의 「청년시대」, 로맹롤랑의 「장 크리스토프」, 스탕달의 「적과 흑」, 플로벨의 「보바리부인」 등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품 가운데는 방대한 분량의 것도 있다. 너무 두꺼운 책을 앞에 놓고 미리 부담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두꺼운 책을 읽으면서 끈기를 기르는 것도 유의한 훈련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형성소설에 재미를 붙이면 자연스럽게 다른 고전으로 옮겨가는 것도 좋다.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의 다른 작품으로 옮겨가 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개중에는 앞에 든 소설들에 전혀 재미를 붙이지 못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독자들은 우선 우리말로 된 소설들을 읽어서 어느 정도의 기초 훈련을 쌓는 것이 좋다.

이때 최인훈이나 이문열의 청춘소설 등은 믿음직스러운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우리말 소설읽기로 독서 기초훈련도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얘기 줄거리에만 정신이 쏠리는 것은 최상의 문학독서 방법이 되지 못한다. 물론 얘기 줄거리의 재미는 모든 서사문학의 기초를 이루는 건강한 요소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원시적인 그만큼 문학이 주는 재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문학작품이 주는 재미는 또 문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의 말투, 말씨, 표정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이 참말인가 혹은 거짓인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문체는 이러한 말씨, 말투 혹은 표정을 글에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문학작품이 주는 진실성은 대체로 문체에 의존하고 있다. 이른바 개연성이라는 것도 글의 경우엔 문체가 풍기며 발산하는 속성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문체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작품이해에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체이해는 언어에 대한 민감한 반응에 의존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모국어로 된 정평있는 시를 정독해서 언어에 대한 세련된 감각을 배양하는 것이 적절한 문학이해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교육받는 모든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모국어에 대한 기본예의이기도 할 것이다.

문학교전은 특수한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분야에 종사하든 우리에게 재미있으면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이 되어 준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탐닉도 좋은 것은 아니나 외면은 더더구나 피해야 할 것이다.